'김병준 파동' 후폭풍 교육부총리 인선 난항

높아진 기준 맞추다 보니…

교수후보들 '논문 검증' 부담 인선 어려워…주말 전후 윤곽 잡힐 듯

새 교육부총리 유력 후보군이 좀처럼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물러난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새 부총리는 오리무중인 상태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 "여러 명을 대상으로 놓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몇 배수라고 할 정도로 후보군이 압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적인 장관 인선 과정에 걸리는 시간보다 지체돼, 부총리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한 관계자는 "인선에 정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는 '김병준 사퇴 파동 후폭풍'에 따른 것이란게 대체적 해석이다. 김 전 부총리를 '낙마'시킨 교수 사회 논문 문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검증 과정도 그만큼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교수들의 경우 김병준 전 부총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교수 출신의 부총리 발탁이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새 논문을 제출할 때 기존 논문의 일부를 발췌.인용하는 등의 행위는 학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에서이다.

노 대통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대학교육 개혁'이란는 과제를 추진할 전문성과 행정력을 겸비하고, '도덕성 검증'을 통과할 후보를 골라내는 것이 쉽지 않은게 청와대의 고민이다.

한 관계자는 관료 출신의 발탁 가능성에 대해 "차단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쪽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다각적으로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관료 출신의 발탁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전문가로 교육부 차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1999~2000)을 지낸 조규향 방송통신대 총장, 전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서범석 전 교육부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또 산자부 장관 시절 교육부총리 물망에 오른 적이 있는 이희범 무역협회장도 거론되지만 무협회장으로 부임한 지 6개월밖에 안된 점이 변수이다. 정치권에서는 개혁에 무게를 두는 차원에서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과 오영교 전 행자부장관의 발탁설도 거론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양형일(광주 동) 의원은 사립대학교수연합회에서 후보로 추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행정력을 높이 사 김인세 부산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등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박석무 전 5·18 재단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2주 일정의 유럽과 미국 순방을 위해 내달 3일 출국할 예정이어서 내주 중으로는 부총리 인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대체적인 인선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北 합법적 계좌까지도 폐쇄"

美 전문가 "불법·합법자금 섞여있어 불가피"

미국 의회조사국 라파엘 펄 연구원은 22일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 이후 북한이 해외 금융기관의 합법적 계좌까지 폐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펄 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최근 해외 금융기관에서도 돈의 출처가 합법, 불법이 확실치 않아 합법적인 일반 계좌까지 폐쇄당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계좌에는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이 섞여 있어 불법자금 적발시 일부 합법적인 자금도 함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금융제재 이후 북한이 베트남, 몽골 등 10개국 23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언급, "해외 금융기관에서 북한 관련 계좌가 동결되고 북한이 다시 새로운 계좌를 열기 위해 애쓰는 것은 북한이 국제 금융체제에서 현재 받고 있는 압박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시중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 10개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 중인 것과 관련, "미국은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계좌문제와 관련해 베트남 등 관련국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 몽골, 러시아 등 어느 나라도 북한 관련 계좌로 인해 자국 은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차관은 북한은 전세계 은행에 달러 위조, 마약 거래 등과 관련된 다량의 불법자금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21일 로이터가 전했다. /워싱턴=연합뉴스

탈선·추돌 잇단 열차사고 열차 두 편이 추돌해 58명이 사망하고 140여명이 부상한 이집트 북부 나일 델타지역 칼유비아역에서 22일 크레인이 탈선한 열차를 치우고 있다(사진 위). 스페인 마드리드 북서쪽 팔렌시아 빌라다의 열차역 인근에서도 21일 오후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을지포커스 훈련 맹비난

北 조선인민군 담화발표

북한은 22일 한미 을지포커스렌즈(UFL) 훈련 실시와 관련, 전쟁행위라고 비난하며 정전협정에 구속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이번 전쟁연습을 정전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전쟁행위로 간주하고, 인민군측은 앞으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군사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는데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언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을지포커스렌즈 합동 군사연습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공갈이며,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한계를 벗어난 하나의 전쟁행위로서 이번 군사연습이 그대로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어디에도없다"고비난했다. /연합뉴스

이란, 나탄즈 핵시설 사찰 거부

이란이 자국의 나탄즈 지방 지하 핵시설에 대한 유엔측의 사찰을 거부하고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도 핵기술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강경발언을 함에 따라 서방측의 이른바 '인센티브'안과 유엔 결의에 대해 강경 반응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빈의 외교관과 관리들은 21일 익명을 전제로 AP 통신에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유엔 사찰단의 나탄즈 핵시설 사찰을 거부, 이란의 핵무기 제조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심각하게 방해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위반행위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서방 주요국이 우라늄 농축 중단시 혜택을 주겠다는 인센티브 안에 대해 스스로 답변을 제시하겠다고 내놓은 시한인 22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아시아 위성서비스시대 열었다

첫 民軍 통신위성 '무궁화 5호' 발사 성공 의미

선상에서 발사…동북아 지역 위성방송·데이터 전송

무궁화 5호는 국내 최초로 전파가 닿는 서비스 지역을 한국에서 중국, 일본 등 동북 아시아 지역으로 대거 넓혔다는 점에서 한국 통신 위성사에 그 의미가 각별하다.

지금까지 발사된 통신 위성인 무궁화 1,2,3호는 모두 국내 서비스 위주로 3호만 제한적인 해외 송출이 가능했다. 이와 달리 5호는 한반도를 넘어 중국 동부와 일본, 대만, 필리핀 등까지 본격적인 위성방송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번 위성은 곧 수명을 다하는 무궁화 2호를 대신할 예정으로 KU(통신주파수의 일종) 대역 중계기 24기를 탑재, 통신 능력이 예전 2호의 갑절에 달한다.

무궁화 위성 전담 사업자인 KT 관계자는 "내장 중계기 24개 중 12개는 예전 무궁화 2호의 역할을 대체하는데 쓰고 나머지 12개를 별도 용도로 쓸 수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한류 콘텐츠를 공급하고 해외 한국 기업에게 본사와의 위성 연락망을 구축해 주는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 수요도 적극 발굴, 긴급 재난 통신 등의 공공 서비스를 함께 개발할 방침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무궁화 5호는 국내 위성 최초로 지상 발사대가 아닌 배 위에서 쏘아 올려져 관심을 끌었다.

안전성과 환경, 국제법, 영토 등의 문제를 볼 때 바다가 발사지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위성은 22일 낮 12시27분(한국시각) 하와이 남쪽 태평양 적도 공해에서 미국 업체인 시런치(Sea Launch)의 관리 하에 발사됐다.

발사에 순조롭게 진행되면 위성은 4일 후 정지궤도에 진입해 안테나와 태양전지판을 펴고, 9일 후에는 궤도 내에서 위성중계기의 성능 시험에 들어간다.

이어 한 달 뒤부터 경기도 용인 주관제소에서 지상 관제를 시작, 모든 테스트가 끝나는 4개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무궁화 5호 본체는 프랑스 통신기기 업체인 알카텔이 제작했고 무게가 약 4.5톤, 수명은 14년 이상이다. 무궁화 3호에 이어 곧바로 5호가 나오게 된 것은 죽을 '사(死)'와 음이 같은 '4'자를 피하겠다는 KT 측의 '센스' 때문이다. /연합뉴스

日 신생아수 6년만에 증가

일본의 출생수가 6년만에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이 21일 발표한 인구동태 속보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1~6월)에 출생한 신생아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천618명이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밀레니엄 베이비붐'이 반짝했던 2000년 이후 6년만이다.

상반기 출생수는 총 54만9천255명. 지난 1월은 출생수가 작년보다 2천명 적었으나 2월 이후 약 1천~6천명이 늘어나는 상태가 5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후생성은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생률이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작년 합계특수 출생률(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어린이 수)은 1.25로 주요 선진국(G-7) 가운데 최저를 경신했었다. /도쿄=연합뉴스